

# 군산,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 5회 연속 인증... 교육도시로서 위상 다져

군산시가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회 연속 인증을 받아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5회 연속 다양한 인재개발과 혁신적인 인사정책으로 2019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Human Resources Developer)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서울 엘타워 메리폴드룸에서 교육부차관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부장, 2019년 인증위원장 및 공공부문 인증대상 기관장 46명(지자체5개 기관, 공공기관 41개 기관)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 수여식이 개최됐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주관하며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관리하고 재직 중 다양한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3년마다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군산시는 지난 2007년 최초로 인증을 받은 후 2010년, 2013년, 2016년에 이어 올해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

관으로 선정돼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평가지표는 인적자원개발(60%)과 인적자원관리(40%) 2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올해는 군산시를 포함 5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 현재 지자체에서는 총 10개 기관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특히 군산시는 전라북도에 서 유일하게 인증을 받고 있다.

시는 성과목표부여 및 운영결과, 공개,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주요시정 현장배움교육, 조직역량강화교육,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정보화 교육 실시, 상시학습 기간 이수제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인사의 정례화 및 인사기초 사전 예고제 등 공무원 인적자원개발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한 동네문화카페 등 평생 학습망 구축을 높게 평가 받았다.

한편, 인증기관에는 ▲3년간 인증서, 인증패 수여 및 로고사용 ▲Best HRD Club 참여 자격 부여 ▲해외연수 제공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가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운영

군산시, 제3기 강좌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군산시가 작년부터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를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한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사업 2019년도 제3기 강좌가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주 동안 진행된다.

지난 1, 2기 동안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됐으며, 제3기는 9월초 현장접수를 받은 결과 2기에 비해 13개 강좌, 66명의 수강생이 증가한 동네문화카페는 414개 장소에서 490강좌를 2,790명의 수강생이, 배달강좌는 107개 장소에서 107강좌를 677명의 수강생이 수업을 받게 된다.

또한, 미처 접수 기간에 강좌를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청강생으로 참여할 수 있게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에 제3기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현황을 게시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기 사업은 521개 장소에서 수업이 실시돼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되며, 70명의 경력단절 여성 등이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402명의 강사가 일지리를 연계해 총 472개의 단기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며, 평생학습과 지역상권의 융합으로 골목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군산시는 강좌 접수 후 신규 교육 장소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실시했고 2회에 걸친 강사와 매니저 사전교육을 통해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힘썼다.

또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군산시 평생학습박람회에 수강생들의 공예, 미술 등 작품을 전시하고, 구도심에서 음악 연주 등 거리공연을 추진하여 수강생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입준 군산시장은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사업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과 골목상권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위촉된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공식

## 1027세대 아파트 신축, 내년 상반기 분양

익산시는 27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이춘석 국회의원, 조규대 익산시의회의장, 시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식전행사인 전자현악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경과보고, 축사, 기념 시삽 순으로 진행

됐다.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분양 아파트 819세대, 임대 아파트 208세대 등 총 1027세대 아파트를 신축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한층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행자인 LH공사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장기 보류할 계획이 었으나 익산시와 정지권이 협력해 어

렵게 재개시켜 지난달 8일 착공했다. 공사는 지난달 8일 착공해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분양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침체된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아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인 인구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최대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사태 조기 해결 총력

익산시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동산동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반

입 저지를 예고해 수거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배출 자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연 사태는 악취로 고통 받는 동산동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설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시까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약취설비 개선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채수경 청소자원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지연될 것을 대비하여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29일까지 모두 배출하고 10월 4일까지는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군산시, 공공 체육시설 사용 온라인 신청 접수 시행

군산시는 10월부터 관내 공공체육시설(월명실내수영장 일부, 주경기장 축구장, 수송구장, 금강구장, 생말구장, 죽곡구장) 사용 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행해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유선 또는 방문으로 사용을 신청해 시민들의 불편이 따랐다.

이번 시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마무리되면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이용시설과 이용날짜를 예약 접수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로 납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체육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월명실내수영장은 어린이반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온라인 신청을 우선 시행하고 이외 다른 반들은 12월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체육시설 사용 온라인 신청 방법은 군산시 홈페이지(<https://www.gursan.go.kr>)에 접속해 소통참여 - 통합예약시스템 - 일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DLG국제식품품평회·한독 공동 심포지엄 익산서 개최

익산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주최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DLG(독일농업협회), 한국육가공협회가 주관하는 DLG 국제식품품평회 및 한독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DLG국제식품품평회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식품 품질경연대회로 3,000명 이상의 전문 평가위원을 보유한 DLG(독일농업협회)의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품평회에서는 매년 수천 품목이 최고의 식품 자리를 놓고 경연이 열리는데 이번 품평회는 육가공품 분야의 식품들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평가기준은 △외포장 △제품외관 △물성 △향 △맛으로 나뉘며, 평가 방법은 제품의 외관을 평가한 후 칼로 절단해 중심부 확인, 가열조리 후 시식을 통한 평가를 진행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한국, 독일의 국내 식품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독 공동 심

포지엄'이 진행됐다.

(사)소비자공인네트워크 이해영 본부장의 '우리나라 식품즉석판매가공업의 현황과 미래'라는 강연을 시작으로 육가공품의 제조기술, 유럽의 식품안전규정, 식품 트렌드 등의 주제 강연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강연 후에는 열띤 토론이 이어져 한·독 식품산업 관계자 간의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또한 행사장 내에 품평회 수상제품·창년창업랩 개발제품 등을 전시 홍보하는 부스도 별도로 마련돼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했다.

이와 함께 전시 부스에는 지원센터 시설에 대한 공인인증서(GMP, KOLAS) 및 특허, 논문, 정부 포상 등 기술지원에 대한 성과를 전시해 식품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